

심세 · 살아 숨쉬는 캐릭터... '감빵생활' 이 특별한 이유



감옥 · 재소자라는 특수상황에도 절절한 부성에 · 가슴 따뜻한 형제애 사람 냄새나는 에피소드로 감정선 자극...범죄미화 우려에도 큰 공감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 2회밖에 남지 않았다. 좀 더 방송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다. 문래동 카이스트 강철두(박호산)의 이갑 소식에 시청자들이 뿔났다. 하지만 실제 감옥에서 이갑은 직전에 알려준다고 한다.

문래동 카이스트 뿐만 아니라 2상 6방 수감자들은 시청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당초 우려했던 범죄미화의 우려를 완전히 떨쳤다.

여기에는 제작진의 세세한 노력이 한몫했다.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 공간의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 2회밖에 남지 않았다. 좀 더 방송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다. 여기에는 제작진의 세세한 노력이 한몫했다.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 공간의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 2회밖에 남지 않았다. 좀 더 방송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다. 여기에는 제작진의 세세한 노력이 한몫했다.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 공간의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적절할 상황에 '여기 착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둑놈이죠. 기본이 얹어치인데 착하고 안착하고를 따져 뭐합니까(유정우) 같은 대사를 집어넣어 범죄자들이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청자를 강하게 흡입시킨 것은 무엇보다 캐릭터의 감정선을 섬세하고 인간적으로 끌고갔다는 점이다. 문래동 카이스트는 허 짧은 대가, 절절한 부성애를 보여주고 퇴장(이갑)했다. 자식에게 간을 이식해주는 아버지와 감옥에 있는 아버

지의 간을 인반으려는 아들 자식에게 아버지임을 밝히지 못하는 '홍길동 뉴 버전' 이야기는 특히 자식을 가진 아버지에게는 심금을 울려주었다.

요즘은 유정우(정해인) 대위가 중대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억울한 살인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 재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유정우를 바라보는 주요한 감정선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유 대위가 범인이 아니라 오병장이었음을 증언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주 상병, 최 상병, 임 상병 등등이 그들인데, 실제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시청자는 조마조마하며 보게 된다.

하지만 유 대위는 과거 주상병이 휴가중 늦게 복귀했지만 탈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정을 알고 오히려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주상병은 유 대위에게 인간적으로 큰 신세를 졌다. 이런 에피소드를 넣어 주상병의 증언을 기대하게 했다.

어릴 때에는 서로 무뎠던 유정우와 형 유정민(정문성) 간의 형제애 또한 중요한 감정선이다. 형은 동생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대학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동생은 형에게 "이제 그만하

고 학교에 충실해"라고 해야되나 하며 고민했다. 시청자들은 이들 형제애를 부러워하면서 공감했다.

이때 감방에서 유 대위와 티격태격하다가 어느덧 '절친이 된 헤롱이' 한양(이규형)이 "그냥 솔직하게 끝까지 도와 달라고 해"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 2회밖에 남지 않았다. 좀 더 방송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다. 여기에는 제작진의 세세한 노력이 한몫했다.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 공간의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tvN 수목드라마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 2회밖에 남지 않았다. 좀 더 방송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다. 여기에는 제작진의 세세한 노력이 한몫했다. 감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 공간의 현실을 소홀히 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유 대위는 한양의 동성애를 이해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미약중독자가 자신의 죄를 달기 위해 한양에게 억지로 약을 먹일 때, 한양을 구해낸다. 이처럼 유대위는 주상병을 위한 배려, 형제애, 한양 구출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시청자들이 그의 감

정선을 끝까지 끌고갈 수 있게 해준다.

이전에도 고 박사(정민성)가 이갑할 때에도 김제력을 위해 깨알처럼 쓴 '훈련일지'를 선물로 남기고, 이런 고 박사에게는 장기수감자(최무성)가 티머니 카드와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 아쉬움을 더하게 만들었다.

이런 수감자들의 이별 의식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앞서 고 박사는 캐릭터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 하나라도 시청자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을 것 처럼 보이며 외로움을 키우던 김민철이 외모는 조폭같지만 젊었을 때에는 풋풋한 사랑을 나누던 순수함을 보여주고, 논문을 쓰기 위해 자신에게 인턴 허러 온 여대생이 혹시 딸이 아닐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도 캐릭터의 감정선 연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릭터 만들기 심세함은 14회 말미 목공반장의 재등장 한 장면만으로도 공공경(가령, 김제력의 마지막 시련)을 충분히 유발시킨다. 이처럼 재소자 캐릭터에게 미세한 감정선까지 챙기느라 러브라인이 오히려 약간 뒤로 밀려난 게 오히려 잘된 일이다.

'추리의 여왕2',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다



'추리퀸' 최강희가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다.

KBS2 새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2'(극본 이성민 연출 최윤석, 이하 '추리의 여왕2') 측은 16일 최강희의 스틸사진을 공개, 더욱 진화한 추리퀸의 면모를 선사할 것으로 예고했다.

'추리의 여왕2'는 장바구니를 던져버린 설옥(최강희)과 막강한 추리단단을 거느리고 돌아온 완승(권상우)이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하며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생활밀착형 추리드라마다. 시즌1의 재미와 인기로 힘입어 시즌2가 제작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있다.

극 중 유실육 역을 맡은 최강희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민중 열정적인 추리퀸, 그는 사랑스러운 추리 여왕 유실육으로 다시 한 번 각종 사건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추리의 여왕2' 제작진은 "시즌1에서 설옥이 가정을 가진 주부로서 이슬이슬한 추리력을 뽐냈다면, 시즌2에서는 본격적으로 거대 사건에 가담하면서 스펀터클한 추리 월드를 이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공개된 스틸만 봐도 영뚱해 보이면서도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시즌 설옥의 새로운 도전을 짐작케 한다.

최강희는 "시즌에서도 설옥이는 역시 설옥이일 것"이라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건 추리에 나서게 될 것 같다. 저 역시도 시청자분들이 더 그에 몰입하고 좋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시즌1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맞췄던 배우 권상우와 최강희의 두 번째 만남으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는 '추리의 여왕 시즌2'는 시즌1의 이성민 작가와 '김과장'의 공동 연출을 맡았던 최윤석 감독이 의기투합 호기심을 부르는 미스터리와 팽 터지는 웃음을 유발하는 코믹의 완벽한 조화를 기대케 하고 있다.

전 시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추리 월드로 안내할 상큼 발랄 최강희의 활약을 예고한 KBS2 새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2'는 오는 2월 첫 방송된다.

'프로듀스 48', 다시 여자다 · 韓日 연습생 미팅 시작



'프로듀스 101' 새로운 프로젝트인 '프로듀스 48'이 가지개를 켜고 있다.

한 예능국 관계자는 16일 "Mnet '프로듀스 48'이 한국과 일본서 여자연습생을 상대로 미팅을 시작했다. 1·2연출을 맡은 안준영PD도

이들 데뷔 멤버를 선발'하는 한국 '프로듀스 101' 시스템과 일본 최고의 프로듀서 아키토 야스시의 반나래 갈 수 있는 아이돌을 컨셉으로 전용 극장에서 상시 라이브 공연을 하는 일본 AKB48 시스템이 결합된 프로젝트다. 양국 단일의 글로벌 걸그룹이 '프로듀스 48'을 통해 탄생할 예정이다. 매년 혁신적이고 과감한 시도로 트렌드를 이끌어 온 Mnet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프로듀서 아키토 야스시와 손을 잡기로 결정, 한일 양국의 시청자와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아키토 야스시와

협력한다.

지난해 Mnet Asian Music Awards에서 첫 발표 남자 혹은 여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꾸릴 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제작진의 선택은 첫 시즌과 마찬가지로 여자 연습생. 기존 시즌에 참여했던 소속사와 새로운 곳 등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도 연출은 안준영 PD가 맡게 됐고 논란을 개선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지난 시즌 합숙 기간 제작진의 고압적인 태도와 PD의 개인적 성향으로 인한 편집, 마지막회 피말리는 시간끌기까지 개연성 없는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한 연출로 논란을 낳았다. 그럼에도 화제성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음력 12월 1일)

<p>▶ 쥐 믿는 사람들과 하는 일을 오늘만은 삼가라. 범피와 하고자 하는 것은 성사할 수 있겠으나 몇 번이고 생각해 처리하도록 하라. 혼자 하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힘에 겨우면 북쪽 사람과 상의하면 길하다.</p>	<p>▶ 용 힘에 겨운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기, 자, 오 성씨를 가진 사람과 손잡고 상의하면 힘이 될 것이다. 신경을 쓰고 찾아보아라. 그대를 돕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투기는 금물. 1, 3, 5월생 검은색 옷은 불운을 만든다.</p>	<p>▶ 원숭이 연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사 먹는 소라에서 진주를 얻는 격이다. 당신이 하려는 일 중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일로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닭, 원숭이 협조만 얻으면 당신에게 행운이 올 듯.</p>
<p>▶ 새 그동안 미뤄온 일들을 기, 바, 흥 성씨가 해결해줄 것이다. 오늘은 뒷사람에게 칭찬받는 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라. 4, 5, 6월생은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지 마라.</p>	<p>▶ 돼지 지금 상황에 맞춰 실력을 발휘하라. 맘 흘려 분발함이 좋을 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 늦은 시간 귀가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짜증 내는 법. 뱀, 돼지 비위를 맞추는 것이 편할 것이다.</p>	<p>▶ 닭 꽃 피면 봄임은, 눈 오면 겨울임은 IQ 50도 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주겠으나 자리를 비우면 놓칠 수 있다. 전화 소리에 신경을 쓰라. 돼지, 닭, 원숭이, 토끼띠가 도움 줄 듯.</p>
<p>▶ 호랑이 자만심을 버리면 뜻밖 바를 성취한다. 기본 공을 꾸지 않았어도 좋은 하루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신병이 찾아올 수 있으니 "음식을 조심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라. 용, 뱀, 양띠와는 멀리함이 이롭다. 신경만 예민해진다.</p>	<p>▶ 양 아들을 기다리는, 딸 둘 가진 아바가 아내 임신 소식을 들은 것처럼 긴장된 한 주가 될 것이다.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서서히 추진하라. 서, 북쪽 사람과 약속한 일 성사한다. 서북쪽 북, 자, 흥 성씨 애정에 어려움이 있을 듯.</p>	<p>▶ 개 준비도 없이 등산하던 사람이 길도 잃지 않고 때가 돼 무사히 하산하는 격으로 뜻밖 바를 순조롭게 진행한다. 그러나 기분이 좋다고 음주하면 기분을 잡치게 쉽다. 1, 5, 12월생 조심할 것.</p>
<p>▶ 토끼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주머니에 당신 손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이 들어올 수 있다. 인생은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잠시 명상하며 차 한 잔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는 오늘이다. 내일을 위해 4, 6, 10월생과 상의해 결정하라.</p>	<p>▶ 말 저축도 없이 쓰기만 하면 쓸 때는 쯤쯤이나 목돈이 필요할 때는 후회할 것이니 참으라. 100원이 1000원이 되고 언젠가 1억원으로 변하니 저축하라. 서두르지 말고, 사랑하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3, 4, 9월생은 웃는다.</p>	<p>▶ 개 지금까지 생각했던 힘든 일은 오늘부터 서두르지 않아도 될 듯. 급하다고 바늘머리에 실을 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어젯밤에 물꿈을 꾸었으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라. 북쪽에 행운이 있다.</p>